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순천시 개막

분권·혁신·포용 위한 지역 균형발전 논의

첫 중소도시 개최...워크숍·공모전
블루자원 활용 혁신 성장에 앞장

모든 지역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25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막했다.



2019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가 25일 오전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시중 총복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허석 순천시장 등이 사도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에서 40개의 학회 세션과 국제 세션, 특별 세션이 열려 주제별로 지역 혁신과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한다.

행되는 공모전은 각기 온라인 예선을 거친 11개팀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다면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보여주는 전시박람회 ▲정책전문가·관계자들의 토론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의 축제의 장인 국민참여 박람회로 구성됐다.

귀어인과 마을주민 소통 ‘귀어의 날’

신안·무안·함평서 27~28일 개최...주거·일자리 등 정보교환

전남도는 27일부터 이틀간 신안 마진, 무안 송현, 함평 석두어촌계에서 귀어인과 마을 주민이 소통하는 ‘귀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경과 여건, 귀어 후 일자리와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분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 공기업 최초 ‘행복동행펀드’ 운영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경영자금 20억 지원

전남개발공사가 예약금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는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이 최종 선정,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남도, 돼지열병 차단 방역 총력

강화·연천 등 확산...도내 양돈농가 24시간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사례가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 지역에서 추가로 접수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

축산농가도 양돈장 출입구부터 축사 물레에 생석회를 살포해 차단 벨트를 구축하고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ASF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도내 양돈 농가 상황을 24시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축 질병 확산을 막는 데는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강도 방역에 대한 농가와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도와 지자체는 외부 유입을 막는 ASF 차단 방역과 농가 소득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경기도 연천 1곳, 인천 강화 1곳의 양돈 농가에서 ASF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타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을 막기 위해 시도 경계 지역에는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해 돼지 이동 경로를 감시하고 거점소독시설도 도내 전 시군에서 가동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의 또 다른 양돈 농가 1곳에서 ASF 의심 개체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지역 ASF 확산에 따른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시행과 이동통제초소 운영, 거점소독시설 확대,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5일 현재 국내에서 5건 확인됐다. 이날 신고 사례가 모두 확진된 경우, 국내 발병 건수는 총 8건으로 늘게 된다.

韓美 “방위비분담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외교부 “존중·신뢰 바탕 협의 지속”...내달 美서 2차회의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국은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단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9억원이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생각이 크게 다르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생각이 크게 다르다.

한미는 내달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한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 7억원, 2명 대상 - 금매물·경매물건 기간 - 2년 이내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법적보장.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주택·아파트 아파트 월상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백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